

人文論叢

80권 3호

2023년 8월

일반 논문

[www.kci.go.kr](http://www.kci.go.kr)



# 일본 아스카(飛鳥)시대 묘제와 장제에 나타난 한반도계 이주민의 영향\*

권오영\*\*

**초록** 일본의 아스카시대와 나라시대의 무덤에 대해서는 한반도와의 관련성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백제의 웅진기와 사비기 고분문화를 묘제와 장제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많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고대 한일관계사에 대한 연구는 임나일본부설이나 영산강유역 전방후원분 피장자 논쟁에서 벗어나서 한반도계 이주민의 일본열도 이주와 정착의 과정과 그 의미를 고분을 통하여 탐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주제어** 고분, 장제, 아스카시대, 나라시대, 횡혈식 석실묘

## 1. 머리말

일본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우리에게 대한 일본의 인식은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일단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러한 이중적 인식은 역사적 배경과 무관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사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은 매우 낮으며, 우리 역사에 대한

\* 본 연구는 2022년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학 강연-집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한국사학 전공 교수



출처: 필자 촬영.

[그림 1] 다카노니카사히메노미코토의 무덤

일본인들의 인식 수준도 마찬가지로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고대 한일관계사에 대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식은 극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 개최를 수개월 앞둔 2001년 12월 23일 아키히토(明仁) 당시 일왕은 68세 생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폭탄 발언을 하였다.

“--- 나 자신으로서는 간무(桓武)천황(재위 781~806)의 생모(生母: 다카노니카사히메노미코토: 그림 1)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續日本紀)에 기록돼 있어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한반도에 대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일본 우익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한일 양국의 언론은 즉시 대서특필하였으나 그

충격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심층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흐지부지 된 것이다.

고대의 정치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변 정치체와 맺은 관계에 대한 연구는 현대의 관계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고대 한일관계사에 대한 높은 대중적 관심은 단순히 학문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조선왕조가 자주적인 근대화에 실패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일제 당국은 식민통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를 왜곡, 조작하였다. 그중에서도 정도가 가장 심한 분야 중 하나가 고대 한일관계사였다. 왜곡된 고대 한일관계사의 핵심은 임나일본부설과 남선경영론으로 압축된다.

여기에 더하여 반도성론, 즉 조선(한국)의 역사는 반도라는 숙명 때문에 약소국의 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반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들어지면서 반도인, 반도사 등의 용어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반도라는 지리적 조건은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리결정론은 성립할 수 없다.

반도성론은 한반도 분단의 당위성을 주장하기에 이르게 된다. 한반도 북부는 이민족인 위만, 혹은 낙랑군의 설치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었고, 남부는 야마토(大和) 정권의 직접지배(가야)와 간접지배(백제와 신라)에서 비로소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논리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남부를 지배한 야마토 정권은 한반도 전체의 패권을 놓고 북방의 고구려와 한판 승부를 전개하여 광개토대왕의 군대에 패하고, 마침내 663년 백강전투 이후 물러났지만 16세기의 임진왜란, 19세기 이후의 조선침략으로 이어지는 진출 노력은 모두 한반도에 대한 연고권을 바탕으로 한 지배의 추구, 역사의 필연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일제의 패망 이후 남북한과 일본 모두 열정적으로 한일관계사 연구를 새롭게 추진하고 고고학적 발굴조사의 성과가 축적되면서 기존의 견해는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일본열도의 야마토가 한반도로 진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의 주민과 문화가 일본열도로 밀물처럼 들어갔음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영남지역에 분포하는 가야고분을 대상으로 삼은 열정적인 발굴조사 결과 임나일본부설은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없음이 증명되었다. 대표적인 조사로는 1970년대의 고령 지산동고분군, 1980년대의 부산 복천동고분군, 1990년대의 김해 대성동고분군 조사를 꼽을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금관가야 왕릉군으로 추정되는 김해 대성동고분군 조사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임나일본부설을 비롯한 고대한일관계사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는 데에 고고학, 특히 고분 조사와 연구가 결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영남이 아닌 영산강유역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의 고유한 묘제라고 인정되어 오던 전방후원분이란 형태의 무덤이 영산강유역과 서남해안 일대에 분포함이 밝혀진 것이다. 1980년대부터 이미 한반도 내 전방후원분의 존재는 예견되었으나,<sup>1</sup> 발굴조사를 통해서 전방후원분의 존재가 확실해지면서 폐기되었던 임나일본부설이 다시 살아날 조짐이 보였다. 전방후원분에는 영산강유역을 무대로 군사적 활동을 전개하던 왜인이 묻혀 있다는 주장과 함께,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일본인 연구자 사이에서 임나일본부설을 연상시키는 주장이 재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고분 조사를 통해 용도 폐기된 임나일본부설이 다시 고분 조사를 통해 부활하기 시작한 셈이다. 전방후원분의 피장자와 등장 배경에 대해서는 그 후 백가쟁명식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sup>2</sup> 전방후원형이라는 외형은 물론이고, 내부에서 출토되는 부장품, 매장주체부의 구조, 외관을 장식한 토제품 등으로 연구 주제가 확산되면서 현재는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의 핵심 주제로 자리 잡았다.

이렇듯 영남지역의 가야고분, 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분은 고대 한일관

1 강인구(1984), 『삼국시대 분구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2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2011), 『한반도의 전방후원분』, 학연문화사.

계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된 상태다. 시간적으로는 3~6세기에 속하는 고분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다. 한반도계 이주민, 특히 백제 주민들이 일본열도로 대거 이주하고, 백제 문화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서 꽃핀 아스카(飛鳥) 문화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관심이 매우 낮다. 그나마 불교와 기와, 사원건축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고분을 비교하는 작업은 별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백제 고분과 아스카시대<sup>3</sup> 고분 사이에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없다는 선입견일 것이다. 아스카시대 도중에 백제가 멸망하였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백제에 대한 관심도 저하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아스카문화가 백제 후기 문화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에서 발전하였고, 극단적으로는 백제 사비기 문화의 일본판이라는 주장까지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껏 고분문화의 비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연구자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본 아스카시대 고분문화를 한반도, 특히 백제의 고분문화와 비교하는 작업은 임나일본부-전방후원분 문제로 이어져 온 “고분을 통한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의 일부이자 마무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왜곡된 고대 한일관계사의 극복이라는 해묵은 과제의 근본적인 해결과도 무관하지 않은 셈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임나일본부, 전방후원분 문제를 간단히 다룬 후, 백제 웅진-사비기의 고분문화와 일본 아스카시대, 나아가 나라시대의 고분문화를 비교할 것이다. ‘고분을 통한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를 심화시키려는 것이다.

3 아스카시대의 시간적 상한과 하한에 대해서는 약간의 편차가 있으나 592~710년으로 보는 견해를 따른다.

## 2. 고분을 소재로 삼은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

### 2.1. 가야고분의 조사와 임나일본부설의 극복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왜곡된 고대 한일관계사의 최대 피해자는 가야사였다. 가야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자체가 부실한 현실에서 해방 직후에도 남북한 모두 가야사 연구는 극히 부진하였다. 1960년대에 북한의 김석형에 의해 “일본열도분국설”이 제기되면서 임나일본부설과 남선경영론의 허구성을 격파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과 가야의 분국이 일본열도에 존재하였으며 그 분국 사이의 관계가 『일본서기』에 남겨진 것이라는 그의 견해는 학사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만, 현 단계에서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문헌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될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논쟁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많다. 3세기 혹은 4세기에 일본 야마토(大和) 조정의 진구(神功)황후가 대군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와서 가야와 신라, 백제를 모두 정벌하였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전문 연구자는 없다. 하지만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의 ‘기마민족 일본열도 정복설’이나 이노우에 히데오(井上秀雄)의 ‘왜인자치집단설’ 모두 임나일본부설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일제의 패망 이후 스에마쓰(末松保和)류의 임나일본부설은 사그라들었지만 변형된 형태는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일소한 것은 가야 고분 발굴조사였다.<sup>4</sup> 대가야의 지배층들이 묻혀 있는 고령 지산동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문헌기록만으로는 그 실체를 알 수 없었던 가야의 왕권을 보여 주었다.<sup>5</sup> 웅장하고 거대한 외관, 장대한 석곽, 막대한 양

4 이하 개별 유적에 대한 발굴보고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개를 생략하고자 한다.

5 김세기(2003), 『고분 자료로 본 대가야 연구』, 학연문화사.

의 부장품, 화려한 귀금속제 장신구, 수십 명의 사람을 죽여서 묻은 순장의 풍습 등은 대가야의 국가 체제와 왕권에 대한 기존 관념에 의문을 던지기에 충분하였다.

1980년대에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 소재하는 4~5세기 고분군에 대한 발굴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일본 고고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고분의 규모와 막대한 부장품의 양은 물론이고, 철제 무기류와 무구(갑옷, 투구), 마구류의 풍부한 부장은 동시대 일본열도의 고분을 압도하는 양상이었던 것이다. 철제 무기, 무구, 마구류의 발전 양상은 이 세력의 군사력이 매우 강대하였음을 보여 주었고, 같은 시기 야마토정권의 무장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진구황후의 가야 정벌은 일장춘몽임이 분명해진 것이다.

1985년부터 6년간 진행된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의 옥전고분군 발굴조사는 가야고분과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에서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M3호분이라고 이름 붙인 대형 고분이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면서 백제 무령왕릉의 용문 환두대도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고 화려한 대도가 4점이나 발견되었다. 이 고분군을 남긴 세력은 문헌에 희미한 흔적만 남긴 나라국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금관가야나 아라가야, 대가야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던 나라국의 실체가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철기류의 부장도 막대하였는데, M3호분에서는 철제 말 투구(馬冑)가 2점 부장되어 있었다. 당시까지 일본열도 전체에서 출토된 철제 말 투구가 2점에 불과하던 상황을 고려하면 철제 마장에서 나라국의 수준이 매우 높았음이 분명하다.

1990년부터 금관가야의 심장부인 김해 대성동에서 대형 고분들이 조사되면서 임나일본부설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세기부터 5세기 무렵에 집중적으로 조영된 금관가야 왕족과 귀족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당시 가야의 왕권, 기술적 발전 수준, 국제교류의 폭과 깊이 등 다양한 면모를 새롭게 보여 주었다. 야마토의 군사적 침략은 커녕 일본 고분문화의 성립과 발전에 가야의 영향이 지대하였음이 증명된 것이다.

이외에 함안의 말산리고분군, 고성의 송학동고분군 등 굵직굵직한 가야 고분의 조사가 연속되면서 문헌을 이용한 팽팽한 힘겨루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임나일본부설 극복의 일등공신은 가야고분 조사라고 할 수 있다.

## 2.2. 전방후원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임나일본부라는 왜곡된 학설이 김해 대성동고분군의 조사와 함께 종말을 맞을 때, 영산강유역에서 돌연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었다. 일본의 전방후원분을 꼭 빼어 닮은 고분들이 한반도의 서남부에 10여 기가 분포하고 있음이 알려지고<sup>6</sup> 그중 몇 기가 발굴조사되기에 이른 것이다.<sup>7</sup>

전방후원분이란 일본 고유의 무덤으로서 3세기 중엽 무렵에 등장하여 6세기까지 지배층의 무덤으로 이용되었다. 현재 5,000기 정도가 확인된다. 최초의 전방후원분은 3세기 중엽 무렵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奈良)현 하시하카(箸墓)고분이다. 전체 길이가 280m에 달하며, 이미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 이 무덤의 피장자는 중국 사서에 기록된 일본열도 최초의 여왕인 히미코(卑彌呼)로 추정되고 있다.

5세기가 되면 전방후원분의 규모가 최대화한다. 특히 오사카 남부의 모즈(百舌鳥)고분군과 후루이치(古市)고분군이 수적으로나 규모 면에서 최고 상태에 도달한다. 모즈고분군에 속하는 다이센(大仙)고분(傳仁德陵)은 전체 길이 486m, 무덤을 감싼 도랑을 포함하면 길이가 800m에 달하는 초대형이다. 이에 일본 학계에서는 중국의 진시황릉, 이집트의 쿠푸 피라미트와 함께 세계 3대 초대형 왕릉이라 주장하고 있다.

전방후원분은 6세기에 접어들면 후원부의 규모가 작아지고 전방부와

6 岡内三眞 編(1996), 『韓國の前方後圓形墳』, 早稲田大学韓國考古学学術調査研修報告.

7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2000), 『한국의 전방후원분』, 백마학술총서11, 충남대학교출판부; 국립나주박물관(2019), 『韓國의 長鼓墳』, 국립나주박물관 자료집 02.

후원부의 비율이 변화하는 등 외관이 변하지만 여전히 일본열도의 최고 수장들의 묘제로 채택되었다. 그런데 영산강유역과 서남해안에서 6세기 초반에 해당하는 전방후원분이 여럿 발견된 것이다.

가야 고분에 대한 관심은 전방후원분으로 이전되었고, 이른바 전방후원분 논쟁이<sup>8</sup>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명칭, 그 무덤에 묻힌 피장자, 이런 무덤이 한반도 서남부에 분포하는 역사적 배경 등이다. 우선 명칭에서는 전방후원분, 장고분, 전방후원형 고분 등이 병존하고 있다. 명칭이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닌 이유는 여기에 내포된 숨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즉 전방후원분이 분포하는 지역은 전방후원분체제에 속하며, 이는 곧 아마토왕권의 세력 범위를 나타낸다는 일본 고고학계의 통설과 마주치게 되기 때문이다.

전방후원분에 묻힌 자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인설, 재지수장설, 왜계 백제관료설 등이 난립한 상태다. 그런데 한반도 남부에는 전방후원분만이 아니라 규슈(九州)지역에서 발전하였던 긴 석곽 형태나 특이한 석실 구조의<sup>9</sup> 왜계 고분, 하지키(土師器), 스에키(須惠器), 철제 판갑(帶金式板甲) 등 왜계 문물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전방후원분만이 아니라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되는 왜계 문물의 존재와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근본적인 과제로 대두되었다. 왜 한반도의 남부에 이런 무덤이 집중하는가? 임나일본부설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등의 질문이 제기되었다. 전방후원분은 고대 한일관계사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었지만 임나일본부설이라는 낡은 논리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보아야 고대 한일관계사의 진면목에 다가설 수 있다.

그 이유는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된 왜계 유적, 유물보다 훨씬 많은 수

8 마한연구원 편(2020), 『장고분의 피장자와 축조배경』, 마한연구원총서8, 학연문화사.

9 대표적인 것으로는 의령 경산리고분, 거제 장목고분, 고성 송학동고분,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신안 배널리고분 등을 들 수 있다.

의 한반도계 이주민 흔적이 일본열도 곳곳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sup>10</sup> 즉 고대 한일관계사의 본질은 아마도 정권의 한반도 남부 침공과 지배가 아니라 백제를 위시한 한반도계 주민들의 일본열도 이주와 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 3. 황혈식 묘제의 확산과 변화

#### 3.1. 백제계 석실묘의 보급

일본에서 고분시대 중기에 해당되는 5세기 무렵부터 기나이(畿内)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이 황혈식 석실묘가 보급된다. 이 시기는 백제사에서 한성기 말~웅진기 초기에 해당된다. 초기 황혈식 석실묘라 불리는 이 묘제의 보급 배경에 백제가 있음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오사카(大阪)부의 다카이다야마(高井田山)고분, 후지노모리(藤ノ森)고분, 이치스카(一須賀)고분군, 나라현 사쿠라이(櫻井)공원고분군, 데라구치오시미(寺口忍海)고분군, 교세야마(巨勢山)고분군, 시가현의 아노오(穴太)·다이고즈카(太鼓塚)·다이쓰우지(大通寺)고분군 등을 들 수 있다.<sup>11</sup>

고분시대 전기(3세기 중엽~4세기)의 묘제가 시신을 위에서 아래로 넣는 수혈식 장법이 주류였음에 반해, 연도가 달리고 부부를 합장하는 방식의 황혈식 석실묘는 묘제만이 아니라 기존 장제와 내세관까지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오사카부 가시와라(柏原)시에 소재하는 다카이다야마(高井田山)고분은 ([그림 2])<sup>12</sup> 장방형 평면, 우편재 연도, 전돌 모양의 납작한 돌 눕혀 쌓기, 궁

10 중앙문화재연구원 편(2012), 『마한·백제인들의 일본열도 이주와 교류』.

11 安村俊史(2014), 「畿内初期横穴式石室にみる百濟の影響」, 『百濟文化』 50,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12 安村俊史·桑野一幸(1996), 『高井田山古墳』, 柏原市教育委員會.



출처: 필자 촬영.

[그림 2] 오사카부 다카이다야마고분

릉상 천장, 2인 병렬합장, 목관 사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을 볼 때, 이 무덤에 묻힌 피장자들은 백제계 이주민, 특히 왕족 부부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무덤과 형태적으로 가장 유사한 무덤은 한성기에 속하는 성남의 판교 석실묘, 하남의 감일동 석실묘, 그리고 웅진기에 속하는 공주 금학동 석실묘이다.

다카이다야마고분 주변에는 곤지를 모신 아스카베(飛鳥戸) 신사가 위치하며 백제계 철기제작 공인이 남긴 오오가타(大縣)유적도 분포한다. 주변에는 고분시대 후기의 군집묘인 아스카베센즈카(飛鳥戸千塚), 종말기의 횡구식 석곽인 간논즈카(觀音塚)고분이 분포하는데 역시 백제색이 짙다.

오사카 동남부 가난초(河南町)에 분포하는 이치스카(一須賀)고분군은 한반도 출신 이주민이 집단적으로 묻혀 있는 이른바 도래인(渡來人)<sup>13</sup> 무덤으

— [www.kci.go.kr](http://www.kci.go.kr)  
13 도래인이란 용어는 바다를 건너왔다는 의미가 되어 일본 측에서는 적합하지만 한국 측

로 인정되고 있다. 그중에서 이치스카 WA1호분은 직경 30m 급의 원분으로서, 황혈식 석실 내에 가형 석관이 안치되어 있다. 유물로는 스에키(須惠器), 하지키(土師器), 소형 명기(明器)의 일종인 미니어쳐 부뚜막, 순금제 이식, 유리구슬(10점), 금동제 관편(冠片), 금동제 식리(飾履), 금동장 단용문(單龍文) 환두대도, 마구, 철도, 철도자 등이 부장되었다. 특히 금동제 식리는 구조와 형태를 볼 때, 백제계 기술로 만들어졌음이 분명하다. 피장자 집단에 대해서는 백제계 이주민인 니시고리(錦部)와 연결 짓기도 한다.<sup>14</sup>

나라현 가쓰라키(葛城)지역의 데라구치오시미(寺口碧海)고분군은 200기 정도의 무덤으로 구성된 대규모 군집분이다. 그중 H-22호묘는 길이 11.7m에 달하는 대형의 황혈식 석실묘로서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사이에 조성된 것이다. 연도에 3개 이상의 관이 추가장되었는데 그중 하나에서는 꽃잎 모양의 환좌금구가 출토되었다. 데라구치후루야시키(寺口古屋敷)고분은 회를 바른 황혈식 석실묘로서 7세기 후반경에 해당된다.

신메이진자(神明神社)고분은 직경 20m, 높이 3.2m의 원분인데, 내부 매장부는 화강암제 절석으로 쌓은 황혈식 석실로서 길이 6.14m, 너비 1.9m 정도다. 현실과 연도를 목문으로 구분한 결과 문에 부착하였던 철제 환금구가 발견되었다. 목문의 존재, 그리고 목관에 사용한 은제품을 볼 때 백제의 영향이 농후하다.

긴키지역에 퍼져 나간 황혈식 석실묘는 석실의 구조만이 아니라 부장된 소형 명기류(토제 미니어쳐 부뚜막과 조리용기), 가랑비녀와 반지 등 귀금속제 장신구의 착장에서조차 백제의 영향을 볼 수 있다. 묘제와 부장품만이 아니라 내세관과 장제에서도 영향을 인정할 수 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는 남매이자 부부 사이인 이자나기노미코토

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백제계 이주민, 가야계 이주민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4 박재용(2014), 「6세기 고대일본 백제계 渡倭人と 불교」, 『百濟文化』 5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pp. 55-73.

(伊弉諾尊)와 이자나미노미코토(伊弉冉尊) 이야기가 전해진다. 남편보다 먼저 죽은 부인을 만나러 황천으로 들어가는 스토리는 중국과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도 황천국 관념이 전해졌음을 보여 준다.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고분을 비교할 때 단순하게 무덤의 구조만이 아니라 장제와 내세관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6세기 말이 되면 고분의 외형에서 전방후원형은 소멸하게 되고 새로이 방분과 팔각형분이 등장하는데 대개 천황가에 한정되는 것 같다. 7세기가 되면 고분 자체가 소멸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646년에 내려진 다이카(大化) 박장령(薄葬令)과 관련된다. 그런데 고분 외형의 축소, 박장화, 1인 매장, 운구하는 관의 사용, 일정한 공간 내에 무덤이 배치되는 능원의 출현 등은 이미 백제에서 경험한 현상이었다.

### 3.2. 거석고분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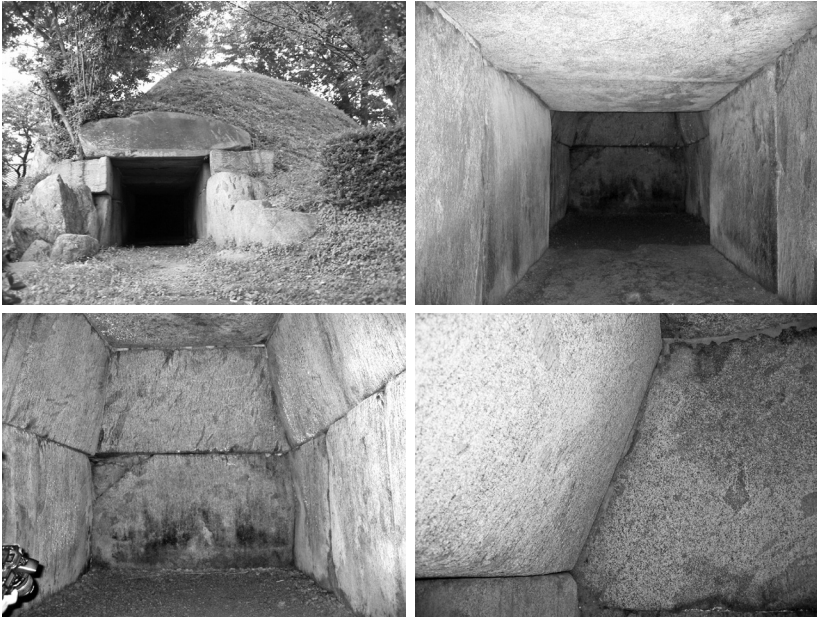
백제에서 유래된 초기형 석실묘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백제색이 얻어지고 현지화되어 간다. 변화의 방향은 두 가지다. 우선 거대한 돌을 이용하여 공간이 넓은 현실을 만든 초대형 석실묘, 즉 거석고분이다.<sup>15</sup> 다른 하나는 잘 다듬은 거대한 절석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매장주체부를 만든 횡구식 석곽이다.<sup>16</sup>

아스카시대에 속하는 종말기 고분은 나라 남부와 오사카 동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sup>17</sup> 당시 정치의 중심지였던 아스카지역에는 이시부터

15 李東奎(2022), 「巨石古墳と奥壁構造について」, 『専修史学』 72, 専修大学.

16 이때의 횡구식 석곽은 한국의 삼국시대-통일신라의 횡구식 석곽묘와는 차이가 많아서 용어의 공통성만으로 동일한 묘제로 볼 수는 없다. 일본 고분시대 종말기의 횡구식 석곽묘는 내부 공간이 극도로 좁아져서 석곽과 같은 형태를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17 北九州市立考古博物館(1993), 『終末期古墳の世界: 高松塚とその時代』, 開館10周年特別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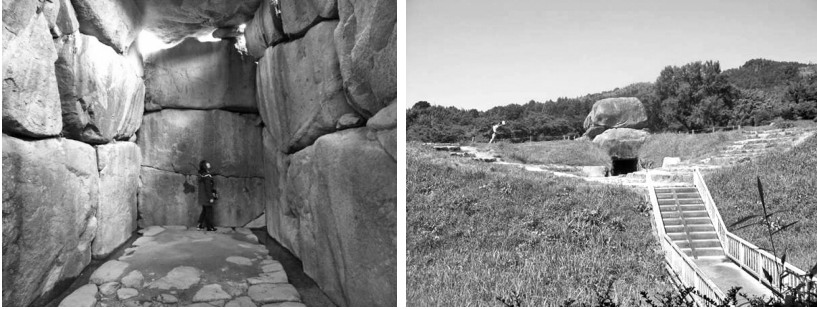


출처: 필자 촬영.

[그림 3] 나라현 이와야야마고분

이(石舞台)고분 이외에 이와야야마(岩屋山, [그림 3])고분, 덴무(天武)·지토(持統)합장릉, 다카마쓰즈카(高松塚)고분, 기토라(キトラ)고분, 겐고시즈카(牽牛子塚)고분, 마루코야마(マルコ山)고분 등 수많은 종말기 고분이 밀집분포한다. 구조적으로는 단일하지 않고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초대형 석실묘의 사례로는 교토(京都)의 헤비즈카(蛇塚)고분(현실 길이 6.8m, 너비 3.9m), 나라현 아스카무라(明日郷村)에 남아 있는 이시부타이(石舞台)고분(현실 길이 7.7m, 너비 3.5m: [그림 4])이 대표적이다. 두 무덤의 석실은 최대급으로서 동시기 천황묘를 능가하는 규모다. 전자의 피장자는 한반도계 이주민인 하타(秦)씨, 특히 하타노카와카쓰(秦河勝)일 가능성이 있고, 후자는 소가노우마코(蘇我馬子)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목만치(木滿致)의 도일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소가씨 세력은 소아만지(蘇我滿智)-가라코(韓



출처: 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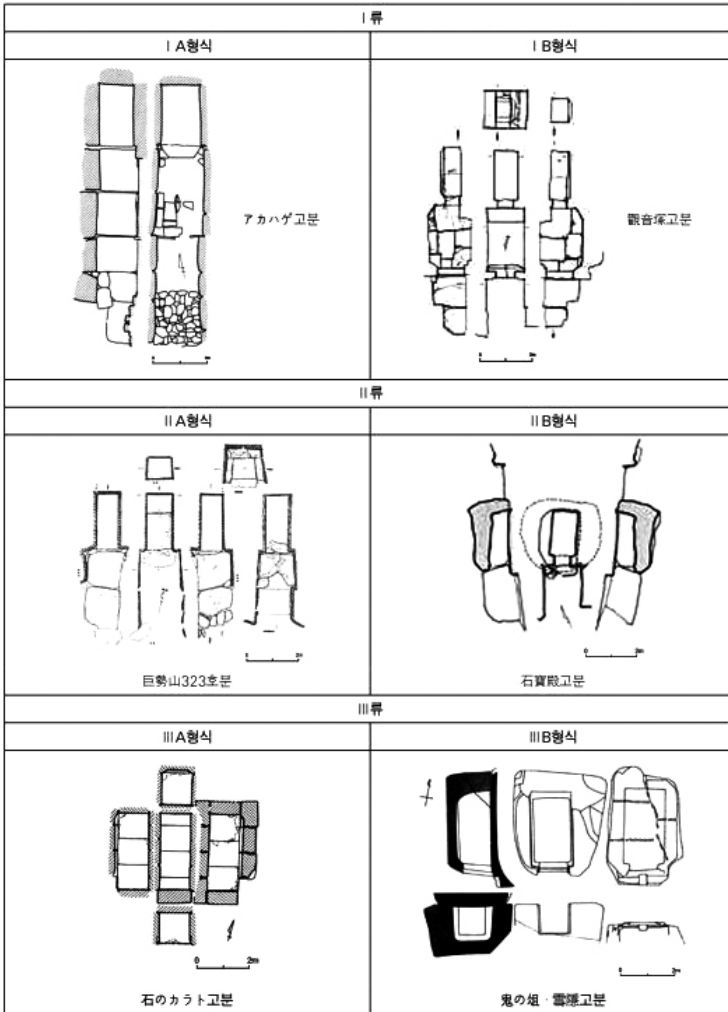
[그림 4] 나라현 이시부타이고분

子)-고마(高麗)-이나메(稻目)-우마코(馬子)-에미시(蝦夷)-이루카(入鹿)로 이어지면서 외척으로 당대 최고의 권세를 누렸다. 쇼도쿠(聖德)태자, 그리고 쓰이코(推古)와 스순(崇峻), 요메이(用明) 등은 모두 소가씨의 손자 내지 사위였다. 이시부타이고분의 봉토가 남아 있지 않은 이유는 다이카(大化)개신에 의해 소가씨 중가가 몰락하게 되면서, 이미 사망하여 묻혀 있는 소가노우마코의 무덤이 훼손된 결과로 보기도 한다. 이시부타이고분이야말로 당시 소가씨의 위세와 몰락을 보여 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가시바(香芝)시 히라노(平野) 2호분은 직경 26m급의 원분으로서 매장부의 전체 길이가 10.6m에 달한다. 거대한 돌로 쌓은 횡혈식 석실로서 현실 바닥에 흙과 돌로 만든 관대, 그 위에 관을 올려놓은 토제 받침이 위치한다. 이러한 관 받침은 후술할 오사카의 쓰카마와리(塚廻)고분에서도 확인된다. 피장자는 치누노오오키미(茅渟王) 일족으로 추정된다.

### 3.3. 횡구식 석곽의 등장

잘 다듬은 돌을 이용하여 매장주체부의 규모를 극도로 축소한 횡구식 석곽의 등장도 주목된다. 횡구식 석곽은 한반도의 횡구식 석곽묘와는 다른



출처: 김규운(2021)

[그림 5] 다양한 구조의 횡구식 석곽

묘제로서 관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매장공간을 축소한 형태다. 재료 면에서는 거대한 절석을 치밀하게 가공하여 조립한 석곽, 응회암을 진돌처럼 가공하여 쌓는 석곽으로 나뉜다(그림 5). 그 기원에 대해서는 고구려와 백제 등

외부적 요인을 고려하는 견해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반면 한반도계 이주민들의 역할만 강조하면 안 되고 재지에서의 변화과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신중론도 발표된 바 있다.<sup>18</sup>

나라현 아스카무라(明日香村)에 있는 덴무·지토합장릉은 동서 38m, 남북 45m의 팔각형분으로서 매장주체부는 횡구식 석곽이며, 덴무의 협저관과<sup>19</sup> 추가장된 지토의 은제 장골기가 매납되어 있었다고 한다.<sup>20</sup>

벽화고분으로 유명한 다카마쓰즈카(高松塚)고분은 직경 16m, 높이 5.4m 정도의 원형 봉토 내부에 횡구식 석곽이 마련되고 그 안에 벽화를 그린 것이다. 거울, 대도, 유리구슬 등이 부장되어 있었으며, 칠을 바른 목관이 발견되었다.

역시 벽화고분인 기토라(キトラ)고분은 직경 13.8m, 높이 3.3m의 2단 축성 원분으로서 내부의 횡구식 석곽에 사신도, 십이지상, 천문도가 그려져 있었다. 화려한 금동제 관장식 금구, 유리구슬 등이 출토되었다.

마루코야마(マルコ山)고분은 외관이 평면 육각형인데, 매장시설은 횡구식 석곽이며 벽면에 회를 발랐다. 칠을 한 목관을 넣고 대도의 금구 등이 출토되었다.

아스카지역의 서남편에 해당되는 다카토리초(高取町)에 소재하는 쓰카묘진(東明神)고분(그림 6)은 팔각형의 외형을 보이며, 내부의 매장부는 응회암 절석으로 쌓은 집모양(家形) 횡구식 석곽이다. 석곽의 평면은 장방형으로서 길이 3.12m, 너비 2.06m 정도인데 그 내부에 칠을 하고 관정으로 조립한 목관을 안치하였다. 축조 시기는 7세기 4/4분기, 피장자는 구사카베

18 김규운(2017), 「일본 横口式石槨의 기원과 그 의의」, 『백제학보』 21, 백제학회; 김규운(2021), 「일본 横口式石槨의 출현과 大化薄葬令」, 『제4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한국고고학회.

19 협저관은 마포와 칠을 여러 번 겹쳐 발라 만든 협저관으로서, 천황이나 황족급 고위 신분의 피장자들이 사용하였다.

20 榎原考古學研究所附屬博物館(2004), 『天武・持統朝: その時代と人々』, 春季特別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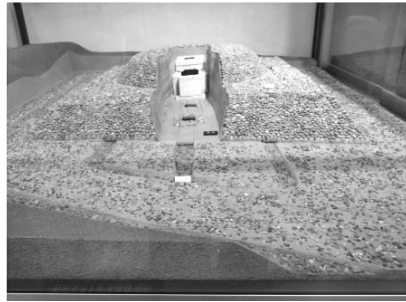
아스카의 쓰카묘진고분 천장내부모습 1



아스카의 쓰카묘진고분 내부모습 2



아스카의 쓰카묘진고분 외부모습



이시노카타고분 모형(아스카자료관)

출처: 권오영(2022).

[그림 6] 쓰카묘진고분과 비교 자료

노미코(草壁皇子)로<sup>21</sup> 추정된다.

이 무덤은 전돌처럼 생긴 절석으로 벽을 만들고 천장이 가형(家形)이란 점에서 판석으로 조립한 단면 방형의 일반적인 횡구식 석곽과 다르다. 오히려 가형의 단면은 사비기 능산리형 석실의 육각형 단면과 상통한다.<sup>22</sup> 단면 육각형의 석실 계보는 마루코야마고분, 기토라고분, 이시노카라토(石のカラ

21 텐텐무와 지토 사이에서 태어난 황태자로서 689년 2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權原考古學研究所附屬博物館(2004), 『天武·持統朝: その時代と人々』, 春季特別展].

22 육각형 단면을 능산리형 석실이 아닌 일본의 가형 석곽과 연결짓기도 한다. 김규운 (2017), 「일본 横口式石槨의 기원과 그 의의」, 『백제학회』 21, 백제학회, pp. 54-55.

卜) 고분으로 이어지고 방향은 다카마쓰즈카고분, 나카오야마(中尾山)고분으로 이어진다.<sup>23</sup> 이처럼 아스카시대 최고 지배층의 무덤에서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서 보이는 단면 육각형과 방향의 횡구식 석곽이 모두 확인되는 점은 주목하여야 한다.

가쓰라기(葛城)시의 신메이진자(神明神社)고분은 직경 20m, 높이 3.2m의 원분으로서 매장부는 화강암제 절석으로 만든 횡구식 석곽(현실 길이 6.14m, 너비 1.9m)이다. 현실과 연도를 목문으로 구분하여 문에 부착하였던 철제 환금구가 발견되었다. 목문의 존재, 그리고 목관에 사용한 은제품을 볼 때 백제의 영향이 농후하다.

도리타니구치(鳥谷口)고분의 매장부는 횡구식 석곽으로서 길이 1.58m, 너비 0.63m, 높이 0.71m 정도에 불과하다. 개구부가 매우 좁아서 화장골이나 개장한 뼈를 매납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기는 7세기 4/4분기, 피장자는 오쓰노미코(大津皇子)로<sup>24</sup> 추정된다. 피장자가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사망하여 무덤의 규모가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히라노쓰카아나야마(平野塚穴山)고분은 한 변 25~30m 정도의 방분으로서 점질토와 사질토를 교차로 판축하여 봉토를 축조한 후 돌로 증석하였다. 내부는 응회암 절석으로 쌓은 횡구식 석곽인데<sup>25</sup> 7세기 후반 무렵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피장자는 사이메이(齊明)와 고도쿠(孝德)의 아버지인 치누노오오키미(茅渟王)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나라분지의 동남부, 아스카의 동편에 해당되는 사쿠라이(櫻井)시에서는 하나야마즈카니시(花山塚西)고분, 몬쥬인히가시(文殊院東)고분과 몬쥬인니시

23 大阪府立近つ飛鳥博物館(2004), 『古墳から奈良時代墳墓へ: 古代律令國家の墓制』, 開館10周年記念特別展示.

24 그는 663년 텐무와 오오타노히메미코(大田皇女) 사이에서 태어났다. 686년 텐무가 사망한 후 당시 황태자였던 구사카베노미코에게 모반한 죄로 자살하게 되었다.

25 이 고분은 형태 면에서는 횡혈식 석실묘와 횡구식 석곽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능산리형 석실묘와 매우 유사하지만 지향점은 횡구식 석곽으로 보인다. 김규운(2017), 「일본 横口式石槨의 기원과 그 의의」, 『백제학보』 21, 백제학회, pp. 43-54.

(文殊院西)고분, 다마키야마(珠城山)고분군 등이 대표적이다.

몬쥬인니시고분은 직경 25~30m, 높이 6m 정도 되는 원분으로서, 내부에 평면 장방형, 중앙에 긴 연도가 달린 횡혈식 석실이 배치되어 있다. 매장부는 전체 길이가 12.48m나 되는 대형이며, 벽은 잘 다듬은 돌을 4단으로 품(品)자형으로 쌓아 올리고 천장은 커다란 판석 1장으로 덮었다.<sup>26</sup> 현실 단면이 육각형이 아닌 방형이란 점은 부여 능산리 서고분군의 1, 2호분과 매우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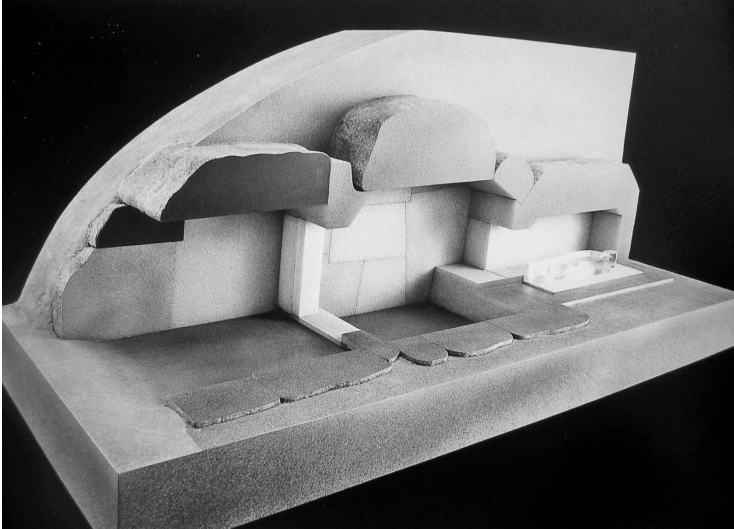
이 시기에는 하이바라이시(榛原石)라고 불리는 돌을 전돌처럼 가공하여 벽재로 사용한 횡혈식 석실도 존재한다. 하나야마즈카히가시(花山塚東)고분은 평면 원형의 봉토, 남북을 장축으로 삼은 평면 장방형의 현실 중앙에 연도가 붙은 구조로서, 하이바라이시를 전돌처럼 가공하여 벽을 쌓고 회를 발랐으며 천장은 거대한 돌로 덮었다. 현실의 단면이 하나야마즈카니시고분은 육각형, 하나야마즈카히가시고분은 방형으로서 사비기 백제 석실묘와 매우 흡사하다. 전자는 현실 평면까지 능산리형 석실과 유사하다. 축조 시기는 7세기 후반, 피장자는 백제계 이주민으로 추정된다.<sup>27</sup>

오사카에서는 다카쓰키(高槻)시 아부야마(阿武山)고분이 대표적이다. 직경 82m의 얇은 원형 도랑을 돌려서 묘역을 표현하였고, 지하에 가공한 화강암으로 쌓은 횡구식석곽 내부에 전돌로 만든 관대가 있고 그 위에 협저관이 안치되었다. 관 내부에서 금실로 자수를 뜬 관모, 유리구슬을 조합하여 만든 베개 등이 발견되었다. 피장자는 다이카(大化)개신의 주역 중 한 명인 후지와라카마다리(藤原兼足)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가시와라(柏原)시 간논즈카(觀音塚)고분(그림 7)은 7세기 중엽에 해당되며, 군집분인 아스카베센즈카(飛鳥千塚)고분군의 일부

26 서현주(2017), 「고분유적」, 『일본 속의 百濟: 긴키지역』, 유적·유물개관편, 충청남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7 권오영(2022a), 「과학기술의 전래」, 『불국토의 나라 유려한 백제문화』, 다시 보는 사비백제사2, 부여군.



출처: 大阪府立近つ飛鳥博物館(2004).

[그림 7] 간논즈카고분 복원 모형

다. 연도와 전실, 그리고 시신을 모신 석곽이 7.2m에 걸쳐 일직선상에 배치된 특이한 구조로서 전실은 제사를 위한 공간으로 추정된다. 마치 석관과 같은 좁은 공간에 1인을 모신 구조로서 일본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특히 모서리 부분을 L자 모양으로 잘라내서 벽석이 서로 접하는 면이 많도록 하는 기술은 한반도의 석성이나 석실에서 자주 보이는 공법이다.<sup>28</sup> 바로 옆에 곤지를 모시는 아스카베(飛鳥戸)신사가 있으며 아스카베센즈카고분군 자체가 곤지의 후손임을 칭하는 아스카베씨의 묘역임을 고려할 때, 간논즈카고분은 백제계임이 분명하다.<sup>29</sup>

돈다바야시(富田林)시의 오카메이시(お龜石)고분은 한 변의 길이가 20m 정도 되는 방분으로서 매장부는 길이 2.65m, 너비 1.74m 규모의 공간에 긴

28 다카노 마나부(2017), 「간논즈카 觀音塚 고분」, 『일본 속의 百濟: 긴키지역』, 유적·유물 상세편·논문편, 충청남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9 笠井敏光(2014), 「昆支王と飛鳥千塚古墳群」, 『백제문화』 5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연도를 연결한 형태다. 1인을 매장한 소형 석실(곽)을 간략화한 것으로서 사비기 석실의 영향이 보인다. 축조시기는 7세기 중엽 무렵, 피장자는 백제계 이주민으로 추정된다.<sup>30</sup>

오사카의 가시와라시에서 돈도바야시로 연결되는 하비키노(羽曳野) 구릉 일대에 분포하는 종말기 고분들은 후지이우지(葛井氏), 후나우지(船氏), 쓰우지(津氏) 등 세 집단의 묘역으로 판단되는데,<sup>31</sup> 이들은 모두 백제계다. 이런 까닭에 황구식 석곽묘 피장자들이 백제계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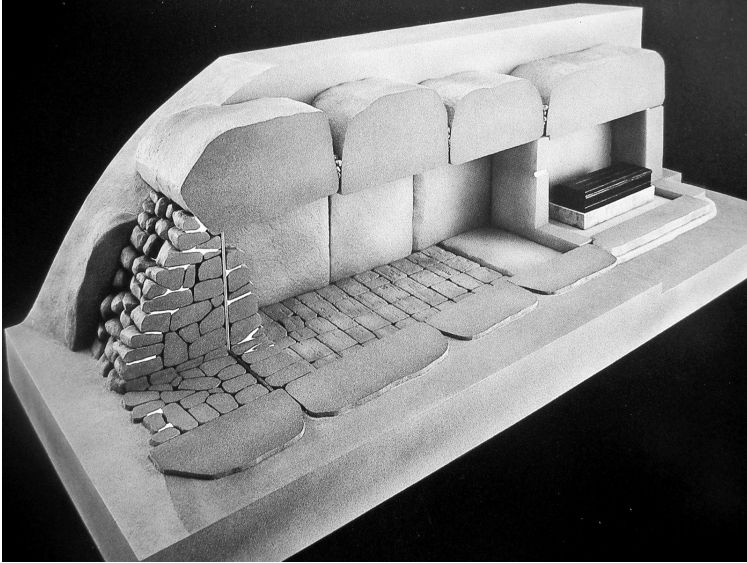
여기서 약간 동쪽에 위치한 가난초(河南町)에는 앞에서 언급한 이치스카(一須賀)고분군이 분포하고, 그 동남편에 고분시대 종말기에 속하는 히라이시(平石)고분군이 있다. 히라이시고분군을 대표하는 무덤으로 서쪽에서부터 시시요쓰카(シシヨツカ)고분, 아카하계(アカハゲ)고분, 쓰카마와리(塚廻)고분이 조사되었다.

시시요쓰카고분의 외형은 동서 60m, 남북 53m, 높이 5m로서 횡으로 긴 장방형의 평면을 띠고 있다. 3단으로 축성되었는데 2, 3단이 판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마다 층석을 붙였고 도랑이 주위를 돌고 있다. 매장주체부는 연도-전실-현실로 이어지며 전체 길이는 11.5m인데, 매장부(현실)는 길이 2.5m, 너비 1.1m로서 극단적으로 작게 설계되었다. 현실과 전실은 잘 다듬은 질석으로, 연도는 자연석으로 축조하였다. 관은 옷칠한 농관(籠棺)이다.

극심한 도굴에도 불구하고 장신구(은제 공옥, 영락줄, 금동제 소환, 은제 환, 은제 허리띠꾸미개, 금동제 반지, 금실, 유리구슬)가 총 1,067점 확인되었다. 이외에 무기류, 4개체 분의 비늘갑옷(札甲), 마구류가 발견되었다. 연도에서 스에키 옹과 고배가 출토되었는데 그 연대는 6세기 후반에서 말 정도로 추정

30 安村俊史(2017), 「오카메이시 お龜石 고분」, 『일본 속의 百濟: 긴키지역』 II, 유적·유물상세편·논문편, 충청남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31 北九州市立考古博物館(1993), 『終末期古墳の世界: 高松塚とその時代』, 開館10周年特別展.



출처: 大阪府立近つ飛鳥博物館(2004).

[그림 8] 쓰카마와리고분 복원 모형

된다. 잘 다듬은 판석을 이용한 종말기 고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아카하계고분은 동서 70m, 남북 40m 이상의 평탄한 단 위에 높이 1.64m의 분구를 3단에 걸쳐 조성하였다. 최상단은 동서 22m, 남북 14m 이상의 규모다. 매장주체부는 배수구를 갖춘 횡구식 석곽으로서 옷칠한 농관, 갈유 도제 벼루가 발견되었다.

쓰카마와리고분의 봉토는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형 방분일 가능성이 높으며, 현실은 잘 다듬은 판석을 이용하여 만든 단면 방형의 횡구식 석곽(길이 2.3m, 폭 1.31m, 높이 1.31m)이다([그림 8]). 심한 도굴로 인해 발견된 부장품은 소량인데 녹유제 관받침(棺臺), 옷칠한 농관, 금을 상감한 쇠칼, 유리 구슬, 금실, 철보은제 장식 등이 발견되었다.

이상 3기의 고분은 3대에 걸친 당대 최고 세력가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고분의 외형은 3단 축성의 방분을 지향하고 있는 점에서 백제와 차이가 있으나 판축기술, 시신을 납입하기에 적당한 소규모의 횡구식 석곽, 잘 다듬은 판석의 사용 등을 고려할 때 사비기 백제 석실묘, 특히 능산리 동하총과 비교된다. 유물 역시 백제색이 짙다.

이곳에서 3km 정도 북쪽에 요메이(用明)천황릉, 스이코(推古)천황릉, 쇼토쿠(聖德)태자묘로 구성된 시나가다니(磯長谷)고분군이 존재함을 볼 때, 당대 천황가의 외척이었던 소가씨 일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sup>32</sup> 게다가 소가씨 무덤이나 건축물에 자주 사용되는 하이바라이시(榛原石)를 사용한 점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sup>33</sup> 하이바라이시는 나라현 우다군(宇陀郡) 하이바라초(榛原町) 주변에서 생산되는 안산암으로서 전통처럼 가공하여 건물이나 고분에 사용하는데 소가씨와 관련된 유적에서 발견되는 빈도가 매우 높다. 소가씨는 백제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sup>34</sup>

### 3.4. 전실묘와 전곽식 석실

중국에서는 전실묘가 매우 번성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드물다. 낙랑-대방과 관련된 한반도 서북지역의 전실묘를 제외하면 삼국시대의 본격적인 전실묘는 공주 교촌리전실묘, 송산리 6호분과 무령왕릉을 들 수 있다. 일본열도에도 전실묘, 혹은 전돌을 이용한 무덤이 분포하지만 국내 학계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무령왕릉과 일본열도 전실묘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그런데 단순히 구조적인 공통성만이 아니라 장법을 고려할 때,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고할 여지가 많다.

무령왕릉은 백제 묘제의 발전과정에서는 매우 이질적이다. 피장자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묘지가 출토되지 않았다면 이질적인 구조로 인하여

32 堀田啓一(2003), 「石室と棺」, 『季刊考古学』 82, 終末期古墳とその時代, 雄山閣.

33 上林史郎(2003), 「河内」, 『季刊考古学』 82, 終末期古墳とその時代, 雄山閣.

34 坂靖(2018), 『蘇我氏の古代学』, 新泉社.

이 무덤을 무령왕릉으로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무령왕릉은 28가지 전돌 수천 점을 쌓아서 평면 장방형, 단면 터널형의 매장부를 만들었는데 중국 강남의 육조시기 전실묘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음은 분명하다. 한때는 백제의 고유한 측면을 강조하려는 주장도 있었으나,<sup>35</sup> 남조 전실묘의 축조 과정이나 축조 후 매장, 제의 과정을 백제인들이 목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sup>36</sup> 이미 완성된 형태로 출현한 무령왕릉의 축조는 남조의 조와공(造瓦工)과 조묘공(造墓工)이 참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sup>37</sup> 백제 묘제의 자체적인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아닌 셈이다.

최근 재발굴조사된 송산리 29호분의 폐쇄전에서 “造此是建業人也”라는 명문이 확인되었다. “건업”(建業)은 장쑤성(江蘇省) 난징(南京)의 옛이름으로서 서진대에 건업(建鄴), 동진대에 건강(建康)으로 명칭이 바뀐다. 따라서 송산리 29호분이 축조되던 시점에는<sup>38</sup> 공식적으로 “건강”으로 불려 마땅하다. 분명한 점은 건업이 중국 난징과 관련된 지명임이므로 건업인(建業人)은 난징 출신 기술자를 지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송산리 6호분 명문전의 “양”(梁)과 함께 웅진기 백제 왕릉의 축조에 중국 남조 기술자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던 증거다.

전통적인 횡혈식 석실묘와는 판이하게 다른, 그것도 이미 완성된 형태의 전실묘를 왕릉으로 채택한 배경으로는 무령왕의 출신과 즉위 과정의 특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 왕계, 혹은 동성왕과 차별 지으려는 의도

35 육조 전실묘에서 벽을 올리는 방식이 3평1수인데 비하여 무령왕릉이 4평1수란 차이점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남경난징의 육조 전실묘 중에는 3평1수만이 아니라 4평1수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으므로 3평1수라는 방식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36 王仲殊(1989), 「魏晉南北朝時代中國與海東諸國的關係」, 『考古』 1989-11.

37 王志高(2005), 「百濟武寧王陵形制結構的考察」, 『東亞考古論壇』 創刊號, 忠清文化財研究院.

38 이 무덤의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의 일치를 못 보았지만, 올려보면 중국의 남제, 늦추어 보면 蕭梁代에 해당된다.



출처: 문화재관리국 편(1973).

[그림 9] 무령왕릉의 봉토

가 완전히 새로운 중국적 묘제와 장제를 채택하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무령왕릉의 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의외로 주목받지 못한 부분 중 하나가 봉토([그림 9])의 구조다. 발굴보고서 및 연구서에 의하면<sup>39</sup> 봉토의 규모는 직경 20m 정도라고 하니 백제 고분치고는 대형에 속한다. 경사면에 입지한 까닭에 봉토의 높이는 일정하지 않아서 낮은 곳에서는 비고 6.2m, 묘실 바닥에서 최정상부까지는 7.7m, 아래쪽에서는 2.2m 정도라고 하며 최고점은 묘실 중앙보다 뒤로 치우쳐 있다고 한다.

허술하지만 호석이 있었음도 보고되고 있다. 아직 한성기에 속하는 횡혈식석실묘에서 호석이 발견된 바가 없고, 송산리 1~4호분에서도 호석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백제 고분에서 호석의 출현은 웅진기 늦은 단계부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39 문화재관리국 편(1973), 『무령왕릉』, 삼화출판사; 충청남도·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1991), 『백제무령왕릉』.

봉토 축조 방법에 대해서는 도면이나 사진, 기술 내용을 종합하더라도 분명치 않은 점이 많다. 관축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다는 기술, 생토면 위에 석회를 혼합한 흙을 최대 1.4m 높이로 두텁게 성토하였다는 점 정도가 확인될 뿐이다. 고분 축조 프로세스에 대한 당시의 이해와 토층 관찰 수준을 고려할 때 봉토의 세부 토층 확인은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관축 여부를 주목하는 이유는 백제 고분 봉토에 관축기술이 발휘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부여의 능산리고분군이나 익산 쌍릉, 그리고 다카마쓰즈카(高松塚)고분<sup>40</sup> 등 일본 고분시대 중말기 고분 봉토에서 정연한 관축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기술이 무령왕릉 단계부터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

배수구의 존재도 주목된다. 무령왕릉에서는 연도에서 묘도를 거쳐 무덤 밖 9.4m 지점까지 길게 이어지는 배수구를 전돌을 이용하여 암거식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한성기 횡혈식 석실묘에서도 전돌모양으로 돌을 다듬은 배수구가 화성 왕림리, 하남 감일동 등지에서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에 백제 고분에서 배수구의 설치는 무령왕릉이 최초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암거식 배수구는 중국 육조묘, 한성기 이후 백제 횡혈식 석실묘, 일본 고분시대 중말기 고분에서 공통적으로 보인다(그림 10). 일본 고분의 배수구는 중국 남조-백제를 경유하여 전달되었을 것이다.

백제에서 전실묘가 등장한 시점은 분명치 않다. 웅진기의 이른 시점인지, 늦은 시점인지가 불분명하다. 게다가 무령왕릉과 6호분, 29호분, 교촌리 전실묘의 선후관계도 분명치 않다. 최근 재발굴조사된 29호분이 무령왕릉보다 늦은 단계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무령왕릉→6호분→29호분의 순서가 제기되었다.<sup>41</sup> 그럴 경우 전실묘가 왕릉으로 채택된 이후에도 여전히 횡혈식 석실묘(29호분)가 왕족의 무덤으로 이용되었음을

40 奈良文化財研究所(2006), 『高松塚古墳の調査』.

41 김환희·이나은(2021), 「백제 왕릉의 조사와 정비현황 검토: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중심으로」, 『문화재』 54(4), 국립문화재연구소.



출처: 필자 촬영.

[그림 10] 교토 모즈메구르마즈카(物集女車塚)고분의 배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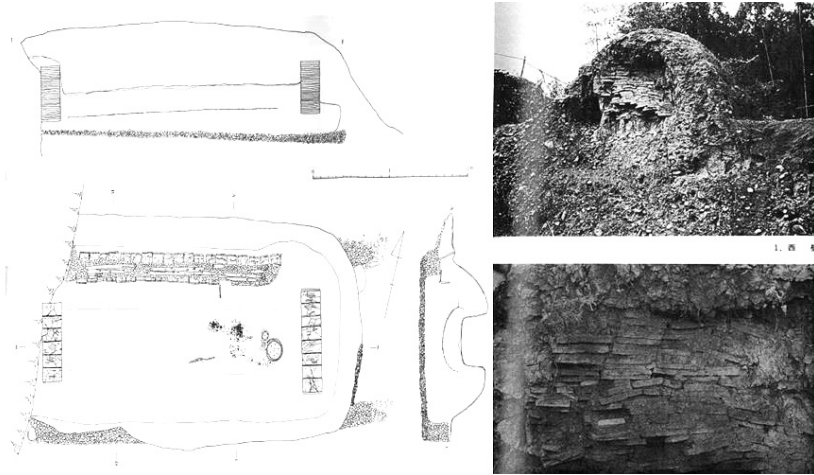
의미하므로 무령왕릉이 웅진기 최후의 고분이 아님 셈이 된다. 무령왕릉과 부여 능산리고분군을 직접 연결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렇다면 6호분과 29호분을 무령왕보다 먼저 사망한 곤지, 문주, 삼근, 동성의 무덤으로 보는 것도 어려워졌다. 그들의 무덤이 어떤 구조였을지도 오리무중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웅진기에서 사비기로 이어지는 시점에 전실묘가 과연 백제 왕릉으로 채택되었는지도 불분명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무령왕릉보다 이른 시기에 전돌을 이용한 무덤이 나타났다.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 아지요시(味美)고분군에 속하는 하쿠산야부(白山藪)고분([그림 11])은<sup>42</sup> 4세기 말~5세기 초에 속하는 직경 20m 급 원분이다.<sup>43</sup> 시신을 말구유형 목관에 안치하고 다시 점토로 포장한 점토곽의 구조인데 목관의 양단을 전돌을 쌓아 막았다. 그리고 목관의 북측에 전돌로 부실을 만든 특이한 구조다. 전실묘의 구조를 의식한 셈인데 백제에서도 공주와 부여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전실묘가 일본에서 먼저 나타난 현상

42 南山大學人類学研究所(1977), 『白山藪古墳發掘調査報告』.

43 이 고분은 이미 멸실되었는데 전체 길이 40m 이상의 전방후원분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출처: 南山大学人類学研究所(1977).

[그림 11] 아이치현 하쿠산야부고분

은 매우 주목된다.

문제는 이 고분이 속한 아지요시고분군이 무령왕과 동시기에 활동하였던 게이타이(繼體)의 처가와 관련되었다는 점이다. 하쿠산야부고분은 일본의 고분 변화과정에서는 돌연 출현한 셈인데, 이 유적이 게이타이의 장인인 구사카(草香)의 세력권 내에 포함되었다면 무엇인가 무령왕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무령왕릉보다 늦은 시기에 전돌을 사용한 고분은 오사카의 종말기고분에서 종종 확인된다. 이바라키(茨木)시 하쓰타(初田) 1호분은 고분시대 후기에 해당되는 횡혈식 석실묘인데 바닥에 전돌을 깔았다. 다카쓰키(高槻)시 아부야마(阿武山)고분은 석실의 위와 옆을 전돌로 덮고 쌓았다. 사카이(堺)시 우시이시(牛石) 11호분도 마찬가지다. 이곳이 백제계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백제적인 문화가 농후하던 곳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7세기 전반부터 나라현 사쿠라이(櫻井)시 일원의 나라분지 동남부에서는 전돌처럼 석재를 가공하여 현실을 만드는 전곽식(塼椗式) 석실이 나

타난다. 단기리(圓切) 33호분, 오쿠노시바(奥ノ芝) 1·2호분, 오시사카(忍坂) 8·9호분, 하나야마니시즈카(花山西塚)고분, 하나야마히가시즈카(花山東塚)고분, 마이타니(舞谷) 2·3·4호분, 미나미야마(南山)고분 등이 대표적이다. 현실 평면은 장방형이 많지만 육각형도 존재하고, 단면은 궁륭상, 육각형, 방형 등 다양하다. 그러나 하이바라이시를 전돌처럼 쌓아서 축조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무덤을 축조한 주체에 대해서는 백제계 도래인이라는 주장과 반론이 대립하는 상태다.

전돌을 사용한 실(곽)이나 전돌처럼 생긴 석재로 축조한 석실, 즉 전곽식 석실을 무령왕릉을 비롯한 백제 고분과 직접 연결짓는 것은 곤란하다. 전곽식 석실과 백제 전실묘의 관련성은 양자의 시간적 괴리, 전곽식 석실에 전돌이 한 점도 없는 점, 전곽식 석실의 평면형태가 백제 전실묘보다 일본 중말기 황구식 석곽과 통하는 점 등을 근거로 부정되고 있다.<sup>44</sup>

물론 양자의 시간적 괴리는 인정된다. 하지만 중말기 황구식석곽 자체가 백제 고분과 유관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릉의 남사면에 남북 방향을 주축으로 삼은 입지, 박장, 잘 다듬은 절석이나 전돌처럼 가공한 하이바라이시로 평면 장방형, 단면 궁륭형·육각형·방형의 현실을 축조하며 내부에 관정으로 결구한 목관의 안치, 벽면에 회를 바르고 배수구가 마련되는 등의 특징은 백제 고분과 상통한다. 이런 점에서 무령왕릉만이 아니라 무령왕릉의 구조적 특징을 계승한 사비기 백제 고분을 아스카, 혹은 중말기 고분과 비교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44 김규운(2020), 「7세기 일본 奈良縣 櫻井지역의 이른바 磚槨式石室 검토」, 『백제연구』 7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4. 장제와 내세관의 변화

### 4.1. 목관 사용의 의미

전실묘라는 구조적인 면모만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목관의 사용이란 측면에서도 백제 웅진기 이후 고분과 일본 고분시대 종말기 고분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고분시대 중기의 석관이 소멸되고 목관이나 헝저관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재료의 문제가 아니다. 고분시대 중기의 석관은 석실을 만들기 전에 이미 석관의 축조가 시작되는 데에 비하여, 후기 이후의 목관은 석실이 만들어진 이후 시신을 모신 관을 들고 가는 방식이다.<sup>45</sup>

경기-충청지역의 3~4세기 무렵 주구토광묘에서는 현지에서 조립하는 목관과 목곽이 주류이지만 황혈식 석실묘가 도입된 이후에는 대부분 외부에서 조립한 목관을 들고 석실로 들어가는 방식이 대세를 이룬다. 일본열도에서는 석관을 사용한 황혈식 석실묘가 대세를 이루다가 점차 상대적으로 가볍고 운구하는 목관으로 바뀌는데 이는 백제 목관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목관의 재료 면에서는 역방향의 현상이 관찰된다. 무령왕릉에 모셔진 왕과 왕비의 목관 재료가 금송이며 그 산지가 일본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금송은 상록침엽수의 일종으로서 제주도와 일본열도에서 자란다. 일본에서 고우야마키(高野槇)라 불리는 최상급의 목재로서 야요이시대부터 고분시대에 걸쳐 사용되었다.

관재로 쓸 정도의 큰 금송은 일본열도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무령왕 부부의 목관재는 일본에서 수입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비기의 익산

45 吉井秀夫(1995), 「百濟の木棺: 横穴式石室出土例を中心として」, 『立命館文學』, 立命館大學學.

쌍릉에서 출토된 관재 역시 금송이어서 백제 왕실은 웅진기와 사비기에 걸쳐 관재를 비롯한 고급 목재로 금송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령왕릉과 쌍릉 출토 목관의 형태, 장식, 관못 등을 고려할 때 목관을 제작한 곳은 백제로 추정되기 때문에 금송은 벌채 후 거칠게 가공하여 운반되었을 것이다. 부여 동하총 출토 목관 역시 금송으로 밝혀지면서 웅진-사비기 백제 왕실이 금송을 애용하였음이 밝혀졌다.

전방후원형의 분형을 갖춘 함평 신덕 1호분 석실에서도 금송으로 만든 관재가 발견되었다. 이 무덤은 웅진기에 속하므로 웅진기 지방사회에서도 금송제 목관을 사용하였음이 밝혀졌다. 문제는 이 무덤의 피장자를 재지수장, 중앙 관료나 왕족, 왜인, 왜계 백제관료 중 어디로 연결지를 것인가 하는 점이다. 피장자를 중앙의 왕족으로 한정지를 경우에는 백제사회에서 금송제 목관은 왕실에 한정되었다는 주장이 유지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금송 사용 계층, 집단을 보다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금송의 산지로 유명한 고야산(高野山)은 와카야마(和歌山)현에 위치한다. 와카야마현 하시모토(橋本)시에 소재하는 스다하치망(隅田八幡) 신사에 소장된 인물화상경에는 총 48자의 글자가 양각되어 있다. 그 내용은 사마(斯麻)가 오호토(男弟)왕에게 이 거울을 만들어 주었다는 내용이다. 이때의 사마가 무령왕, 오호토가 즉위 이전의 게이타이(繼體)라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이 맞선 상태다. 무령왕 부부의 목관재인 금송의 주서식지인 와카야마현에서 무령왕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울이 출토된 점의 의미심장하다.

금송제 목관의 문제는 목관을 이용한 시신 운구의 관념이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반면, 재료는 일본에서 백제로 이동한 매우 흥미로운 사례다.

#### 4.2. 박장과 장신구

대부분의 백제 고분은 기본적으로 박장이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수

천 점의 유물은 부장품이 아니라 왕과 왕비의 장신구다. 수백 점의 토기류와 철기류를 매납하는 신라, 가야 고분의 부장품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 고분시대 후기 이후 무덤 출토 유물은 부장품보다는 장신구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외래기원일 가능성이 농후한 횡구식 석곽이 극단적인 박장의 모습을 보이고 그 배경이 다이카박장령(大化薄葬令)과 유관함을<sup>46</sup> 고려하면 박장의 풍습이 먼저 시작된 백제 웅진기 이후의 고분을 주목하여야 한다.

무령왕 부부의 관식은 1쌍의 금제 장식을 유기질제 관모에 결합한 구조이다. 서로 형태가 다르지만 모두 백제산임이 분명하다. 흥미롭게도 무령왕릉계 장신구가 6세기 이후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크게 유행한 경향과 달리 무령왕 부부의 관식과 유사한 관(식)은 가야, 신라, 왜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일본 고분시대의 무덤에서 출토된 관(식)은 대부분 한반도산 관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된 것인데, 가야나 신라의 영향은 보이지만 백제 영향은 드물다. 식리와 용봉문 환두대도에서 백제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확인되는 것과 판이하다. 시마네(島根)현 야스기(安來)시 사기노유묘인아토(鷲の湯病院跡) 횡혈묘에서 출토된 금동제 관식이 그나마 가장 유사하다.

무령왕릉 출토 단륜문 환두대도에 대해서는 그 제작지를 남조로 보는 견해도 있었지만, 과학적인 분석결과 백제산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령왕릉 스타일의 환두대도는 주변으로 확산된다. 특히 대가야권과 일본열도에서 용봉문 환두대도가 크게 유행하게 된다.

무령왕 부부가 착용한 금동제 식리는 전형적인 백제식 제작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저판과 양 측판 등 3개의 금동판을 리벳으로 결합시키는 방법으로서 고구려 및 신라의 제작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시문방법은 투조문과 타출문이 공존하는데 한성기에는 투조문이, 웅진기 이후에는 타출

46 김규운(2021), 「일본 横口式石槨의 출현과 大化薄葬令」, 『제4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한국고고학회.

문만 남게 된다. 문양의 종류는 능형문, 귀갑문, 연화문, 인동당초문, 어문 등 다양하다.

무령왕 부부의 금동식리는 영산강유역권, 가야권과 일본열도로 확산되었다. 영산강유역에서 과거에는 나주 신촌리 9호분 출토품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고창 봉덕과 나주 정촌고분에서 완벽한 형태의 식리가 발견되면서 백제 식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남원 두락리고분에서 작은 편으로 발견된 식리는 능형문이 타출되고 단면 방향의 못이 박힌 것으로서 백제산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서 발견된 금동식리 중 백제계가 분명한 예는 규슈(九州) 구마모토(熊本)현의 에다후나야마(江田船山)고분, 오사카(大阪)부 이치스카(一須賀)WA1호분, 시가(滋賀)현의 가모이나라야마(鴨稻荷山)고분, 나라(奈良)현 후지노키(藤ノ木)고분 출토품 등이다.

관과 허리띠, 식리를 착장하고 용문계 환두대도를 패용한 상태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풍습은 확실히 일본 고유의 장법과는 거리가 멀다. 한반도의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그중에서도 백제 고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4.3. 승선적(昇仙的) 내세관

무령왕릉의 입구를 바라보면서 무덤을 지키는 기능을 지닌 석수는 진묘수가 분명하다. 진묘수는 백제의 묘장제에서는 보이지 않던 풍습이다. 중국에서는 초묘(楚墓)에서 진묘수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진한을 거치면서 점차 확산되어 남북조와 수당 무덤에서 다양한 형태, 재질의 진묘수가 제작되었다. 북조의 진묘수가 인간의 모습을 띤 반인반수가 포함되어 있음에 비해 남조의 경우는 물소, 돼지, 천산갑, 악어 등을 모델로 삼고 있다. 무령왕릉 진묘수는 남조 진묘수에 맥이 닿아 있는데, 진(陳)의 황제릉으로 추정되는 난징(南京) 영산대묘(靈山大墓)의 진묘수와 형태와 크기가 흡사하

다.<sup>47</sup> 난징시박물관에 전시된 석제 진묘수 중에 무령왕릉 출토품과 유사한 사례도 확인된다.

무령왕릉 진묘수는 머리에 철제 뿔이 달린 형태인데 이는 남조 황제와 황족들의 무덤 앞에 세우는 석수(石獸)와도 상통한다. 진묘수와 석수는 무덤을 지키는 임무에 더하여 피장자를 신선세계로 안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한대(漢代) 이후 중국의 내세관은 서왕모가 다스리는 서방으로 가서 신선이 되는 것, 즉 승선사상으로 체계화되었으며 도교의 장생불사(長生不死), 우화승선(羽化昇仙)과 연결되었다. 이런 점에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독각계 진묘수는 승선적 내세관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자료가 나라현 기비즈카(吉備塚)고분이다. 이 무덤은 길이 약 40m 정도의 전방후원분인데 2개의 매장시설을 갖고 있다. 그 중 6세기 2/4분기로 추정되는 제2주체부에서 삼루문 환두대도가 철제 찰갑, 철도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환두부에는 날개를 활짝 편 사람의 모습이 표현되었으며 도신 양면에는 용호(龍虎), 조인(鳥人), 꽃 등이 상감되어 있다. 이 모습은 죽은 자의 영혼을 태운 용과 호랑이를 서왕모에게 안내하는 조인을 표현한 것이다. 남조 전실묘 벽면에 승선적 내세관을 표현한 조인희호(鳥人戲虎), 조인희룡(鳥人戲龍)의 모습 그대로이다. 6세기 일본 고분에 승선적 내세관을 표현한 유물이 부장된 진귀한 사례다. 그 경로에서 백제를 제외하는 것은 곤란하다.

#### 4.4. 묘지 부장과 화장

일본에서 7~8세기 무렵 묘지를 부장한 무덤은 16기 정도인데, 7세기 대의 2점을 제외한 14점은 화장과 관련된 것이다. 7세기 대의 묘지란 것

47 권오영(2006), 「무령왕릉 진묘수의 계보와 사상적 배경」, 『무령왕릉: 출토품 분석보고서(II)』, 국립공주박물관.

도 실제로는 8세기 초에 개장할 당시에 들어간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세기 무렵의 묘지는 화장과 관련성이 높다.

『속일본기』에 의하면 700년에 승려인 도소(道昭, 道照)가 화장되었다고 하니 문헌에 나타난 최초의 화장이다. 그는 교오키(行基)의 스승이며, 가와치(河内) 다지히노코호리(丹比郡) 후네노무라지(船連) 출신이다. 이들은 모두 백제계 이주민들이다. 다지히는 왕진의 후예 씨족인 선(船), 진(津), 백저(白猪)씨가 거주하던 곳이기도 하다.

702년 지토(持統)가 사망하자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 화장되어 남편인 덴무(天武)의 무덤에 합장되었다. 707년에는 몬무(文武), 721년에는 겐메이(元明)가 차례로 화장되었다. 나라시대에 들어와 왕실에서 화장이 성행한 것이다. 이후 고분문화는 완전히 변화하여 화장에서 나온 뼈를 보관하는 장골기와 묘지, 매지권의 장묘문화가 주축이 된다.

나라시대의 화장이 불교의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불교의 전래와 최초 화장 사이에 150년 정도의 시간적 낙차가 있어서 직접 관련짓기 어렵다. 오히려 율령체제에서 지방과 권인이 임지에서 사망한 경우 귀장을 위한 방편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sup>4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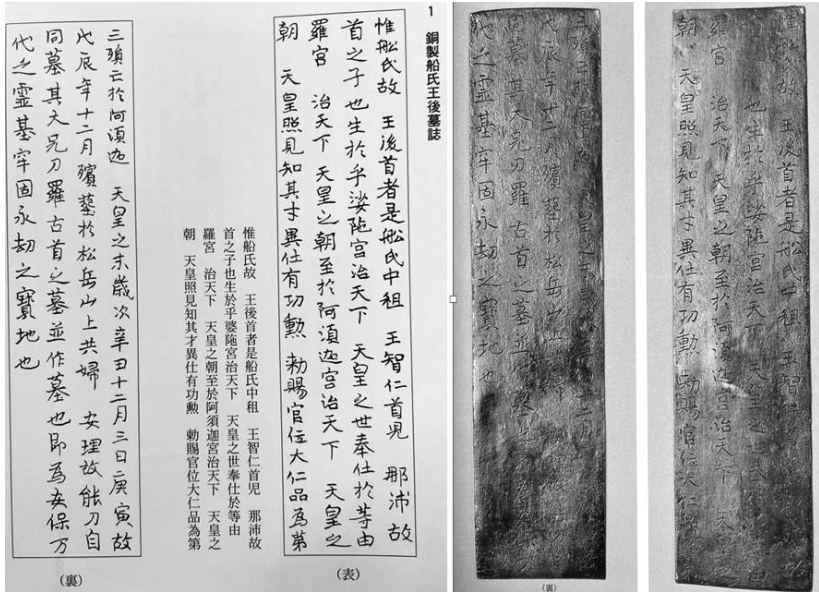
화장의 계보에 대해서는 백제설, 신라설, 당설의 삼파전이 진행 중이다.<sup>49</sup> 일단 당의 영향을 배제하여야 하는 이유는 당시 중국은 화장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백제와 신라가 후보로 남게 된다.

묘지의 형태도 중국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중에는 분명히 백제계 이주민과 관련된 것들을 추출할 수 있다.<sup>50</sup> 백제계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였던 오사카부 가시와라(柏原)시에서 후나시오오고(船氏王後)의 청동제 묘지(〔그림 12])가 발견되었다. 그는 왕지인(王智仁), 즉 왕진이(王辰爾)의 손자다. 왕진이

48 上原真人(1996), 「火葬が始まった理由」, 『古都發掘: 藤原京と平城京』, 岩波新書.

49 小田裕樹(2011), 「日韓古代火葬墓の比較研究」, 『日韓文化財研究II』, 奈良文化財研究所.

50 大阪府立近つ飛鳥博物館(2004), 『古墳から奈良時代墳墓へ: 古代律令國家の墓制』, 開館10周年記念特別展示.



출처: 大阪府立近つ飛鳥博物館(2004).

[그림 12] 후나시오오고의 묘지

는 명백한 백제계이며, 후나우지(船氏) 역시 오사카에 정착한 대표적인 백제계 씨족집단이다.<sup>51</sup>

에도시대에 나라에서 후미노네마로(文祢麻呂) 묘와 관련된 금동용기, 유리제 골호, 청동 상자와 함께 청동묘지가 발견되었다. 그는 대표적인 백제계 이주민 집단인 가와치노후미우지(西文氏) 출신이다.

나라현 고조(五條)시에서 야마시로노이미키마사카(山代忌寸眞作)와 부인인 가야노이미키아키바(蚊屋忌寸秋庭)의 금동제 합장묘가 발견되었다. 마사카는 오사카의 이시카와(石川)군을 무대로 한, 아키바는 나라현 다카이치(高市)군을 무대로 한 이주민 출신이다.

51 박재용(2014), 『6세기 고대일본 백제계 渡倭人과 불교』, 『百濟文化』 5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교오키(行基)는 나라시대를 대표하는 승려인데 그의 무덤이 1235년에 발굴되었다. 돌로 만든 함의 내부에 2중으로 청동제 통을 넣고 다시 그 안에 사리를 넣은 은병이 들어 있는 형태였다고 한다. 청동제 통에 새겨진 내용을 통해 교오키의 사리기임을 알게 되었다. 교오키의 아버지 고시노사이치(高志才智)는 오사카를 무대로 삼은 백제계 이주민, 어머니 하치다노코니히메(蜂田古爾比賣) 역시 백제계 이주민일 가능성이 높다.

이시카와노토시다리(石川年足)의 묘지가 오사카 다카쓰키(高槻)시에서 발견되었는데, 화장 인골을 넣은 금송제 껍질 위에 놓인 채로 발견되었다. 그는 소가씨 직계 귀족 관인인데, 소가씨가 백제계 이주민일 가능성이 높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1613년 교토에서 오노노에미시(小野毛人)의 금동제 묘지가 발견되었다. 그의 아버지인 오노노이모코(小野妹子)는 607년에 구라쓰쿠리노후쿠리(鞍作福利)와 함께 수(隋)에 파견되었던 인물이다. 구라쓰쿠리노후쿠리는 백제계 기술자로 유명한 구라쓰쿠리노도리(鞍作止利)의 아들이다.<sup>52</sup> 오노노이모코의 기반은 오오미(近江)의 오쓰(大津)지역인데, 이곳은 백제계 이주민이 다수 거주하던 곳이다. 따라서 오노씨 자체가 백제계이거나 백제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이 분명하다.

이렇듯 8세기 오사카와 나라 일대에 분포하는 화장묘와 묘지는 백제계 이주민과 관련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화장의 풍습과 묘지 부장이 백제계 이주민들에 의해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 비록 시간차가 있고 묘지의 형태에서 차이가 있으나 무령왕릉 묘지와 매지권 연구가 한반도에 국한되어서는 곤란함을 보여 준다.<sup>53</sup>

통일신라의 묘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알려진 통일신

52 박재용(2014), 「6세기 고대일본 백제계 渡倭人과 불교」, 『百濟文化』 5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53 권오영(2022b), 「일본 열도 속에 남아 있는 다양한 백제의 문화양상」, 『백제와 함께 한 의자왕』, 다시 보는 사비백제사3, 부여군.

라 묘지는 3건으로서 경주 용강동 6호분에서 출토된 주서를 쓴 전돌 묘지, 건녕(建寧) 2년명 묘지(895), 그리고 염거화상(廉巨和尚) 탑지(844) 정도가 있다. 염거화상 탑지는 승려의 묘지로는 최초의 사례다.<sup>54</sup> 신라의 묘지는 일본 나라시대 묘지보다 늦지만 화장과 묘지가 공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5. 맺음말

고대 한일관계는 일방적인 정복이 아닌 각자의 필요에 의한 교섭이 실상이었다. 한반도 여러 나라와 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가 문헌과 고고학적 증거로 남아 있다. 이 증거가 근대 이후 일본 제국주의 사학에 의해 악용되면서 고대 한일관계사의 진상이 왜곡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한일관계는 어떻게 가야 할까? 살육의 시대를 넘어 상호 공존, 존중의 시대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체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른바 국뽕, 식민사학 모두가 배격되어야 한다.

그동안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 주제는 임나일본부와 전방후원분, 시간적으로는 4~6세기에 한정되었으나 이는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아스카시대와 나라시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7~8세기의 외부적 충격, 문화적 영향에 대해서 한반도는 고려하지 않고, 중국의 당 왕조만을 강조하던 일본 학계의 분위기가 국내 학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당시 일본의 정치계와 문화계에서 큰 힘을 발휘하던 백제계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다.

그 결과 백제 웅진기(475~538)와 사비기(538~660)의 묘제와 장제의 변화를 일본의 그것과 비교하는 작업이 매우 부진하였다. 6세기와 7세기는 고분

54 국립경주박물관(2002), 『문자로 본 신라: 신라인의 기록과 필적』, 특별전, p. 268.

시대 후기와 종말기(아스카시대)에 해당된다. 아스카문화는 백제 사비문화의 일본 버전이라는 인식이 강하면서도 정작 아스카-나라시대 고분에 대한 비교 연구가 부진한 것이 한, 일 양국 학계의 현실이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금속제 용기나 환두대도, 귀금속제 장신구(관식, 신발, 귀걸이 등)가 일본 고분시대 후기에 널리 확산되는 양상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되었다. 무령왕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되는 인물들이 나라시대 이후에 활동하는 모습에 대한 문헌사적 연구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무령왕릉 자체, 즉 무덤의 구조(전실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무령왕릉에서 확인되는 상장제(묘지와 매지권 등)가 과연 일본 고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주목한 연구는 없다. 심지어 사비기의 능산리형 석실묘와 고분시대 종말기, 혹은 아스카시대 고분과 비교하는 작업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풍수에 입각한 입지, 판축기술, 전돌의 사용, 능산리형 석실묘와 유사한 석실(곽), 묘지와 매지권의 사용, 화장의 실시 등은 일본 아스카시대 고분문화를 이해할 때 백제 웅진기-사비기 고분문화와 비교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백제 후기 무덤과 유사한 형태의 무덤에 묻힌 피장자, 이를 축조한 공인집단은 백제계 이주민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왜인이었을 것이다. 무덤을 통한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가 고분시대를 넘어 아스카시대와 나라시대로 연장되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 참고문헌

- 강인구(1984), 『삼국시대 분구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국립나주박물관(2019), 『韓國의 長鼓墳』, 국립나주박물관 자료집 02.  
 국립경주박물관(2002), 『문자로 본 신라: 신라인의 기록과 필적』, 특별전.  
 권오영(2022Aa), 「과학기술의 전래」, 『불국토의 나라 유려한 백제문화』, 다시 보는 사비백제사2, 부여군.  
 권오영(2022Bb), 「일본 열도 속에 남아 있는 다양한 백제의 문화양상」, 『백제와 함께 한 의자왕』, 다시 보는 사비백제사3, 부여군.

- 권오영(2006), 「무령왕릉 진묘수의 계보와 사상적 배경」, 『무령왕릉: 출토유물 분석보고서(II)』, 국립공주박물관.
- 김규운(2021), 「일본 横口式石槨의 출현과 大化薄葬令」, 『제4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한국고고학회.
- 김규운(2020), 「7세기 일본 奈良縣 櫻井지역의 이른바 磚槨式石室 검토」, 『백제연구』 7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김규운(2017), 「일본 横口式石槨의 기원과 그 의의」, 『백제학보』 21, 백제학회.
- 김세기(2003), 『고분 자료로 본 대가야 연구』, 학연문화사.
- 김환희·이나은(2021), 「백제 왕릉의 조사와 정비현황 검토: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중심으로」, 『문화재』 54-4, 국립문화재연구소.
- 다카노 마나부(2017), 「간논즈카 觀音塚 고분」, 『일본 속의 百濟: 긴키지역』, 유적·유물 상세편·논문편, 충청남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대한문화유산연구원(2011), 『한반도의 전방후원분』, 학연문화사.
- 마한연구원 편(2020), 『장고분의 피장자와 축조배경』, 마한연구원 총서 8, 학연문화사.
- 문화재관리국 편(1973), 『무령왕릉』, 삼화출판사.
- 박재용(2014), 「6세기 고대일본 백제계 渡倭人과 불교」, 『百濟文化』 5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서현주(2017), 「고분유적」, 『일본 속의 百濟: 긴키지역』, 유적·유물개관편, 충청남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安村俊史(2017), 「오카메이시 お龜石 고분」, 『일본 속의 百濟: 긴키지역』 II, 유적·유물상세편·논문편, 충청남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중앙문화재연구원 편(2012), 『마한·백제인들의 일불분열도 이주와 교류』, 충청남도·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1991), 『백제무령왕릉』.
-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2000), 『한국의 전방후원분』, 백마학술총서11, 충남대학교출판부.
- 岡内三眞 編(1996), 『韓国の前方後圓形墳』, 早稲田大學韓國考古学學術調査研修報告.
- 橿原考古学研究所附屬博物館(2004), 『天武·持統朝: その時代と人々』, 春季特別展.
- 堀田啓一(2003), 「石室と棺」, 『季刊考古学』 82, 終末期古墳とその時代, 雄山閣.
- 吉井秀夫(1995), 「百濟の木棺: 横穴式石室出土例を中心として」, 『立命館文学』, 立命館大学.
- 奈良文化財研究所(2006), 『高松塚古墳の調査』.
- 南山大学人類学研究所(1977), 『白山藪古墳發掘調査報告』.
- 大阪府立近つ飛鳥博物館(2004), 『古墳から奈良時代墳墓へ: 古代律令國家の墓制』, 開館10周年記念特別展示.
- 笠井敏光(2014), 「昆支王と飛鳥千塚古墳群」, 『百濟文化』 50,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 北九州市立考古博物館(1993), 『終末期古墳の世界: 高松塚とその時代』, 開館10周年特別展.
- 上林史郎(2003), 「河内」, 『季刊考古学』 82, 終末期古墳とその時代, 雄山閣.

- 上原真人(1996), 「火葬が始まった理由」, 『古都發掘: 藤原京と平城京』, 岩波新書.
- 小田裕樹(2011), 「日韓古代火葬墓の比較研究」, 『日韓文化財研究II』, 奈良文化財研究所.
- 安村俊史·桑野一幸(1996), 『高井田山古墳』, 柏原市教育委員會.
- 安村俊史(2014), 「畿内初期横穴式石室にみる百濟の影響」, 『百濟文化』50,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 安村俊史·桑野一幸(1996), 『高井田山古墳』, 柏原市教育委員會.
- 王仲殊(1989), 「魏晉南北朝時代中國與海東諸國的關係」, 『考古』 11.
- 王志高(2005), 「百濟武寧王陵形制結構的考察」, 『東亞考古論壇』創刊號, 忠清文化財研究院.
- 李東奎(2022), 「巨石古墳と奥壁構造について」, 『專修史學』72, 專修大学.
- 坂靖(2018), 『蘇我氏の古代学』, 新泉社.

원고 접수일: 2023년 8월 10일, 심사완료일: 2023년 8월 18일,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18일

## ABSTRACT

# The Influence of Korean Peninsula Migrants on Tombs in Asuka Period, Japan

Kwon, Ohyoung\*

There are not many studies paying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ombs of Baekje in the Asuka and Nara periods of Japan. However, when comparing Baekje's Ungjin phase and Sabi phase ancient tombs with those of Japan in terms of structure and funeral customs, many elements are found in common. Therefore, research on the history of ancient Korea-Japan relations should shift away from the Imna Japanese annexation theory and Japanese-style ancient tombs in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o explore the process and meaning of migration and settlement associated with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Ancient Tombs, Funeral Custom, Asuka Period, Nara Period, Horizontal stone chamber and Tombs

—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